

홈 > 뉴스 > 지역 > 합천

합천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프로그램 실시

농촌 지역문제 해결 위한 농촌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18년 08월 20일 (월) 16:40:10

김상준기자 ✉ jeromex@nate.com



합천군은 지난 16일 행복합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및 전문가 초청 교육'과 '귀농귀촌 교육' 2개 과정을 시작하면서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맞춤형 및 전문가초청 교육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리 등 전자상거래 기술 △약용식물 가공기술 △친환경 약초의 선택 및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 이해와 농업창업 마인드 제고 △지역민과의 갈등 관리△소득작물 경영기술 등을 통해 귀농·귀촌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은 40명 기준으로 선발하여 진행되며, 맞춤형 및 전문가초청교육은 16일부터 9월 13일까지(매주 목요일) 5주에 걸쳐 실시되며 귀농귀촌교육은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매주 화요일) 4주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신청과 문의상담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을 통하여 가능하며, 추후에 실시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 홈페이지(예정)를 통

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 연말까지 농촌융복합(6차)산업, 향노화사업, 농산물 마케팅,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개발, 귀농귀촌교육, 전자상거래 등을 내용으로 하여 4개 과정 3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 우수자에 대해서는 당일 또는 1박2일 선진지 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조수일 소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군 내 발생하는 다양한 농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민간 주도의 농촌활력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